



2024년 / 6월 3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6월 17일(월) 10시: 2024년 전주시 인문주간 평가회의
- 6월 19일(수)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 2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1일(화) 18시부터 연구원 운영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의에서는 2차 문화답사와 사진공모전, 회원의 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한구고전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2차 문화답사는 박애스더 행정간사가 사진공모전은 장근범 운영위원, 회원의 날 및 개원기념식 준비위원회는 박규현 운영위원이 책임주체를 맡아 사무국과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 2차 문화답사 안내

연구원 문화답사 안내드립니다. 이번 문화답사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2024. 6. 21(금) 09:00~18:00

장소: 대전. 논산 일대(죽림서원, 팔괘정, 회덕향교 등)

지난 주까지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30여 명입니다. 무더위를 뚫고 옛것과 새길의 만남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 - 연구원 신규 후원회원 가입

지난 주에도 많은 분이 새 식구로 연구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김춘기 선생님, 이해옥 선생님, 박옥희 선생님, 조윤경 선생님, 윤수은 선생님, 양도식 선생님이 주인공입니다.

김춘기 선생님은 시를 지으며 전주에서 생활하고 계시며 이해옥 선생님은 전주 현대자동차에 근무중이십니다. 두분은 황지호 운영위원이 추천하셨습니다. 박옥희 선생님은 군산역사사랑회에서 활동중이시며 이연숙 회원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조윤경 선생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으로 재직중이시며 우리 연구원 창립 원장이신 조광 선생님의 맏이입니다. 지난 12일(수)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변주승 원장님의 추천으로 회원 가입 하셨습니다. 윤수은 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활동하다 은퇴하시고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며 양도식 선생님은 전주에서 공인노무사로 활동중이십니다. 두분은 밖애스더 행정간사님이 추천하셔서 연구원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연대를 약속하며 연구원 정기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더 자주 뵈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인문클래스 영상 안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와 전주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한 <인문 클래스 시즌1> 영상 강좌를 안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주에 전해드리는 영상은 우리 연구원 서정화 회원(전주대)이 진행한 두 개의 강좌입니다. 아래 주소로 입장하시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인간 승리 무주 한풍루"

<https://www.youtube.com/watch?v=1A67CsleZN0&t=141s>

"콩쥐 팥쥐가 전복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8iZeQVLlvIQ&t=74s>

## ■ 유영봉 교수와 함께 걷는 DMZ 이야기

### 경기평화누리길 제 7구간 - 3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점심을 먹기 위해 마침내 식당 한 곳에 들렀다. 만두전골을 곁들인 보리밥집이었다. 시원한 막걸리가 한 순배 돌자, 턱까지 턱턱 차오르던 숨결이 수욱 내려갔다. 입맛이 열른 돌아왔다.

점심 식사 후 화석정을 만났으니, 정자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우리를 맞았다. 화석정이 임진왜란 때 불탔다는 기록은 여러 서책에서 전하는데, 여기에는 율곡 선생과 관련한 전설 한 꼭지가 깃들었다.

율곡 선생은 평소 틈이 날 때마다 들기름으로 화석정의 마루와 기둥을 닦도록 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면 읽어보라고 봉투 하나를 세상에 남겼다.



선생이 세상을 뜬 지 8년 뒤 임진전쟁이 일어났다. 선조는 급히 피난길을 재촉하다가, 임진강을 맞닥뜨렸다. 문제는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었다.

마침 율곡 선생의 유언이 생각난 이항복李恒福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화석정에 불을 지르라'라고 쓰여 있었다. 마침내 화석정에 불을 붙이자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으니, 선조는 무사히 임진강을 건널 수 있었다.

회원 88명의 눈길은 굽이치는 임진강을 더듬었고, 그 눈길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다. 너나없이 내뿜는 긴 한숨이 소리 없이 새어 나와 임진의

강물을 따라 흘러내렸다. 뜨거운 여름의 햇살 아래 세상은 고요했다.

정자 앞에는 율곡 선생이 8세 때 지었다는 그 유명한 시 <화석정>이 천연석 위에 새겨 있었다.

숲속 정자에 가을 벌써 깊어서  
시인의 생각 끝없이 일어나는데  
먼 물빛은 하늘 닿아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 향해 붉구나  
산은 외로운 보름달 토해놓고  
강은 만 리의 바람 머금었는데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가  
울음이 저녁 눈 속에서 끊어지누나

林亭秋已晚 임정추이만 騷客意無窮 소객의무궁  
遠水連天碧 원수연천벽 霜楓向日紅 상풍향일홍  
山吐孤輪月 산토고륜월 江含萬里風 강함만리풍  
塞鴻何處去 새홍하처거 聲斷暮雪中 성단모설중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